

고진영 '상금왕' ... 김세영 '올해의 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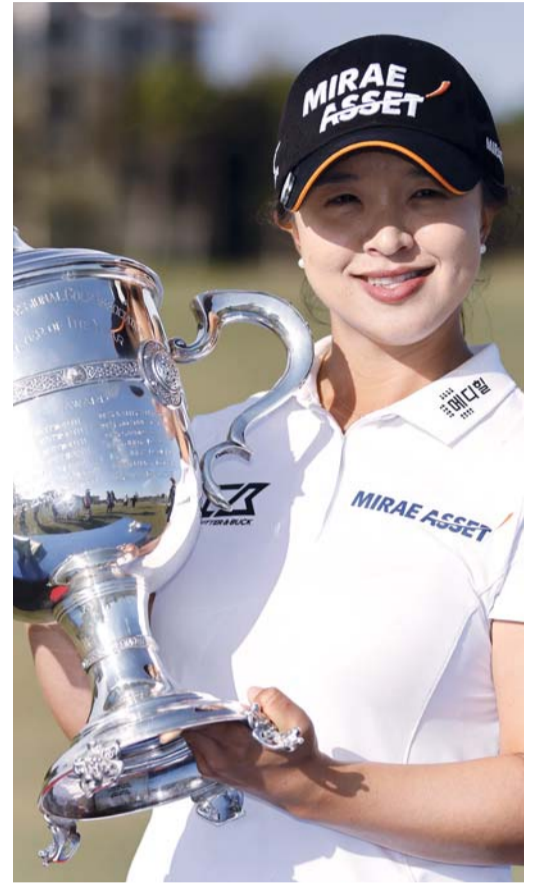


고진영

LPGA 최종전 CME 챔피언십, 고진영 18언더파 5타차 우승
김세영 공동 2위... 한국 올 18개 대회 중 7승 합작 '최다승국'

여자 골프 세계 랭킹 1위 고진영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2년 연속 상금왕에 올랐다.
고진영은 21일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의 티뷰론 골프클럽(파72·6556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2020시즌 최종전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총상금 300만 달러)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1개로 6언더파 66타를 쳤다.
최종합계 18언더파 270타를 기록한 고진영은 공동 2위 김세영과 해나 그린(호주)을 5타 차로 따돌리고 투어 통산 7승째를 거뒀다.
우승 상금 110만 달러(약 12억원)를 받은 고진영은 시즌 상금 166만 7925 달러를 벌여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상금왕이 됐다.
시즌 최종전을 제패한 고진영은 한 해의 성적을 포인트로 환산한 CME 글로벌 레이스 챔피언에도 등극했다.
고진영은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11월이 돼서야 LPGA 투어 대회 출전을 시작, 2020시즌 전체 18개 대회 가운데 겨우 4개 대회에만 나오기도 상금왕, CME 글로벌 레이스 챔피언에 오르는 저력을 발휘했다.
LPGA 투어 올해의 선수는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에서 준우승한 김세영이 차지했다.
3라운드까지 김세영이 고진영에게 1타 앞선 단독 선두였지만 최종 라운드 10번 홀까지 둘은 나란히 13언더파로 공동 1위로 맞섰다.
11번 홀(파4)이 승부의 분수령이 됐다. 김세영의 티샷은 오른쪽으로 크게 치우쳤고, 고진영의 티

샷 역시 벙커로 향하며 나란히 위기를 맞았다.
김세영의 약 6m 거리 파 퍼트가 왼쪽으로 빠지면서 타수를 잃은 반면, 고진영은 4m 정도 파 퍼트를 넣으며 1타 차 단독 1위가 됐다.
한숨을 돌린 고진영은 12번 홀(파3)에서 7번 아이언 티샷으로 공을 홀에 약 2m 남짓 거리로 보내며 2타 차 선두로 달아났다.
11번 홀 위기를 넘긴 고진영은 14번 홀(파5)에서 약 2m 거리의 버디 퍼트를 넣고 3연속 버디, 3타 차 선두가 됐다.
15번 홀(파4)에서 김세영의 티샷이 또 오른쪽 카트 도로까지 밀리면서 둘의 간격이 4타 차가 돼 어느 정도 우승의 향방이 정해졌다.
고진영은 마지막 18번 홀(파4)에서 우승을 자축하는 버디를 넣고 5타 차 완승을 마무리했다.
고진영은 지난해 8월 캐나다 피시픽 여자오픈 이후 약 1년 4개월 만에 투어 통산 7승을 달성했다.
지난해에 이어 시즌 최종전 2연패를 노렸던 김세영은 대회 우승은 놓쳤지만 올해의 선수 포인트 12점을 획득, 이 대회 전까지 1위였던 박인비를 6점 차로 제치고 생애 첫 올해의 선수가 되는 영예를 누렸다.
이 대회 전까지 상금과 올해의 선수 부문 1위였던 박인비는 2언더파 286타, 공동 35위로 이번 대회를 마쳤다.
평균 타수 부문에서는 김세영이 규정 라운드 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시즌 최저 타수를 기록하고도 이 부문 1위에 주는 베어 트로피를 대니얼 강(미국)에게 내줬다.



김세영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33개 대회가 예정됐으나 18개 대회만 치러 별도의 신인왕을 선정하지 않았다.
한국 선수들은 올해 7승을 합작, 6승의 미국을 제치고 올해 LPGA 투어 최다승국이 됐다. 2015년부터 6년 연속 우리나라가 LPGA 투어 최다승국 1위를 지켰다.
/연합뉴스



손흥민

'US오픈 신데렐라' 김아림, LPGA 진출 선언

미국 무대 첫 도전에서 '메이저 퀸'에 오른 장타자 김아림(25·사진)이 내년 본격적으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뛰어든다.
김아림은 21일 매니저먼트사를 통해 LPGA 투어 진출을 선언했다.
김아림은 15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챔피언스 골프클럽에서 끝난 제75회 US여자오픈에서 정상에 올라 2021~2022년 LPGA 투어에서 뛸 자격을 얻었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만 활동해오던 그에게 미국 진출을 위한 결심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16일 귀국해 자가격리 중인 김아림은 "LPGA 투

어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무대다. 이번 US오픈에 참가하면서 훈련 환경이 너무 좋아서 여러모로 반할 수밖에 없었다"며 "더 좋은 환경에서 경기할 수 있고, 나의 골프도 더욱 발전할 멋진 기회라고 생각하고 도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갑작스럽게 기회가 온 만큼 신중하게 많은 부분을 고민했다"며 "현재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많은 분의 도움과 지원이 있기에 최대한 잘 준비해서 하나씩 풀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직은 격리 중이라 구체적인 계획은 차차 세워 나갈 것이다.
김아림은 "많은 것이 바뀔 것 같다. 전담 매니저,



시커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트레이너와 캐디를 찾는 것부터 동계훈련 계획, 첫 대회 출전 일정, 집을 구하는 문제 등 생각해야 할 것들이 참 많다"며 "매니저먼트사와 상의해 대략적인 그림만 그려 놓았고, 차츰 구체화
/연합뉴스

'손' 경제 가치는 2조원

문체부·스포츠정책과학원 분석

'손에이셔널' 손흥민(토트넘)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국내·외 설문조사 등을 종합해 손흥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1조 9885억원으로 분석했다.
항목별로 보면 ▲축구시장에서의 가치 1206억원 ▲수출 증대 및 생산 유발 효과 1조 1220억원 ▲무형의 가치 7279억원 ▲광고 매출 효과 연 180억원 등이다.
12월 현재 축구시장에서 손흥민의 가치는 1206억원에 이른다.
세계 프로축구 선수들의 시장 가치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사이트 트랜스퍼마크트를 바탕으로 구단의 지불능력, 스포츠산업의 규모, 구단의 사업성, 선수시장의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한 수치다.
수출 증대 및 유발 효과는 1조 1220억원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 보면 대유럽 소비재 수출 증대 효과가 3054억원, 그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 6207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1959억원 등이다.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대유럽 소비재 연평균 수출액은 10조 2395억원이다.
문제부는 "최근 손흥민의 활약에 따라 선수 가치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전성기에 접어든 선수라는 점을 들면 향후 경제적 파급 효과는 더 커질 전망이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프로야구 선수들 장외서 한판 대결



28일 'e스포츠' 스페셜

KIA 최원준 등 출전 유튜브 중계

KBO리그 선수들이 그라운드 밖에서 'e스포츠'로 한판 대결을 벌인다.
KIA 최원준 등 프로야구 선수와 '울프' 이재완 등 전 LoL 프로선수가 함께하는 'e스포츠' 스페셜 경기가 오는 28일 열린다.
'리그 오브 레전드: 협곡의 선수들'이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개발·유통사인 라이엇 게임즈가 개최한다.
KIA 최원준과 함께 오재원·함덕주(이하 두산), 고우석(LG), 김원중·김준태(이하 롯데), 노시환(한화), 박종훈(SK), 배제성(KT), 원태인(삼성), 최원태·김해성(이하 키움)이 'e스포츠' 선수로 변신해 장외 승부에 나선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울프' 이재완, '고릴라' 강범현, '플레임' 이호중, '갱맘' 이창석 등 전 LoL 프로 선수들도 출사표를 던졌다.
프로야구 선수 3인과 전 LoL 프로선수 1인, 인플루언서 1인 등 총 5명이 한 조를 이뤄 총 4개 팀이 대회에 참가한다. 이들은 4강 토너먼트 단판 승부를 벌인다.
프로야구와 e스포츠 종목의 벽을 허문 이번 대회에 앞서 KBO 선수들은 실력 테스트를 통해 각자의 포지션과 타어에 맞게 3인 1개 조를 구성해 훈련에 돌입했다. 선수들의 연습 경기 장면 등을 담은 사전 영상과 4강 라이브 매치는 라이브 게임즈 공식 유튜브, 트위치, 아프리카 채널과 SPO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한편 우승팀은 상금 전액을 기부해 연말 따뜻한 나눔에 동참할 계획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